

고령자패널조사 소개

신현구·부가청·반정호*

I. 머리말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매우 압축적인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8.7%로서 OECD국가 평균 13.6%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여타 국가보다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에는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등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20%)에 도달하는 기간도 영국 45년, 프랑스 41년, 독일 40년, 미국 15년, 일본 12년 등으로 예측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7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만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령화 과정을 겪는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온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대비한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한국노동연구원은 2006년부터 고령자패널조사를 실시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패널자료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패널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종단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큰 이점이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들을 관찰하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고령자패널팀.

는 데에는 일회성 횡단면 자료보다는 패널자료가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패널조사를 통하여 고령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고, 유럽도 최근 들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시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6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인 고령자패널조사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령자패널조사 설계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므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많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국내외 고령자 관련 조사에 대해 살펴본 후, 고령자패널조사의 추진 방식과 패널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고령자패널조사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는 선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고령자 관련 조사현황

1. 국내 조사

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우리나라의 고령자 관련 통계조사로서 먼저 살펴볼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이하 『노인생활실태조사』)이다(정경희 외, 2005). 『노인생활실태조사』는 1994년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초점을 둔 첫 전국규모의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노년기에 대한 태도 등을 수집하였다. 1994년 이후 1998년과 2004년 두 번 더 조사되어 각각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2004년 조사의 경우 가구조사와 노인 개인조사로 나누어졌다. 가구조사의 경우 가구원 사항, 가구주 일반특성,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노인 개인조사의 경우는 조사가구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경우 노인의 일반특성, 가족 및 친구관계, 직업 및 경제상태,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생활환경 등을 다루었다. 표본규모는 가구조사가 9,308가구, 노인 개인조사가 3,278명이었다.

『노인생활실태조사』는 노인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3회 모두 각기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횡단조사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개인조사의 대상이 65세 이상 노

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과정을 포괄하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지만, 조사 종료 및 자료 정선(data cleaning) 이후 1년 동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며, 그나마 1년 이후에도 데이터 구입비용이 비싸서 외부 연구자가 이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나. 한림대학교 노년학연구센터의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종단연구』

다음으로 살펴볼 조사는 한림대학교 노년학연구센터(현 고령사회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2~2004년에 걸쳐 실시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종단연구』이다. 조사대상은 45~65세 장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표본은 대도시 지역(서울),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춘천 및 인근 농촌)에서 모두 2,529명이며, 표본의 70%가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되었다(Park and Yi, 2004). 이 조사는 심리학, 의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에 걸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고령화가 가진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노인의 건강상태, 유병률, 의료 서비스 현황, 노인의 정신건강과 치매, 삶의 만족도, 정서 및 욕구, 사회적 지지, 복지서비스 이용 및 태도, 노후대책, 사회적 활동 및 참여, 가족관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앞서 언급한 조사내용은 1차와 3차년도 등 2번에 걸쳐 조사되었다. 대신 2차년도 조사에서는 4개 주제별 - 회학/사회복지, 의학/심리학, 여성학, 한미 비교(Korean-American Studies) 등 - 로 패널의 일부를 다시 추출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학/사회복지의 경우 서울과 춘천 지역의 65세 이상 표본을 각각 400명씩 추출하여 경제적 환경, 자녀와의 관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문화적 자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종단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종단면 조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처음부터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 점과 더불어 비록 패널에 노년층뿐만 아니라 45세 이상의 중년층이 포함되었지만 서울과 춘천에만 국한되어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3차년도 조사의 경우 1차년도 표본의 35% 이상이 추적 불가인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상 패널로서의 의의는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공개가 되지 않아 외부 연구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원래 3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에도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이 생산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1998년 시작된 이래로 현재 8차년도(2005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중에 중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다. 2001년에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 및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를, 2004년에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고령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활용성을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패널조사가 아니라 전체 표본 중에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노동패널의 표본이 처음부터 비농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패널조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패널조사』이다(이용하, 2004). 『국민연금패널조사』는 아직까지 자료를 수집한 단계는 아니며, 2004년에 패널자료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본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패널조사』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실태 및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저축 및 근로(퇴직) 등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데, 미국의 고령자패널조사(HRS)를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패널조사는 동태적 고령화 과정과 연금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자료로서, 소득보장, 건강 및 국민경제 등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며, 고령화 현상과 추이, 그리고 연금정책의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¹⁾

표본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영국의 고령자패널조사(ELSA)나 한국노동패널 표본수와 유사한 12,000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준비하는 고령자패널조사의 기본방향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패널조사』의 기본방향은 학제적 연구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국민연금패널조사』가 주관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연금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사 내용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2. 외국 패널조사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령자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고령화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체계적인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령화에 관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고령자패널조사를 살펴본다(Lee, 2004; 이용하, 2004).

가. 미국의 고령자패널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HRS)²⁾

미국은 패널조사에 의한 자료수집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1960년대부터 연금 및 은퇴와 관련된 패널조사가 시작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HRS는 공적연금이 퇴직 및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고안된 RHS(Retirement History Survey)를 대체하는 패널조사로서, 영국 고령자패널조사(ELSA)와 유럽의 고령자패널조사(SHARE)의 기본 모델로 참조되었다. HRS는 51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 및 퇴직, 각종 보험가입 상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간 지원체계 등 퇴직과 저축 행위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이다. HRS는 1992년 당시 51~61세의 중고령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퇴직직전 연령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이행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격년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별도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라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의 주로 건강, 가족, 주거 및 경제적 변수(저축, 소비, 재산 등)간의 동태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8년부터는 HRS와 AHEAD의 두 표본조사를 통합하고, 표본도 확대하여 51세 이상의 전 미국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퇴직과 고령화 과정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한편 HRS는 국세청의 소득자료, 사회보험청의 소득 및 연금 관련 자료, 사회부조 자료, 매디케어 파일 및 국민생명표(National Death Index)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1차년도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컴퓨터지원 면접(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을 실시하였고 이후 조사부터는 컴퓨터지원 전화면접(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 HR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http://hrsonline.isr.umich.edu>).

나. 영국의 고령패널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 ELSA)³⁾

미국의 HRS에 자극을 받아 시작된 영국의 ELSA는 2000년에 준비를 시작하여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제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2차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는 격년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LSA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건강, 경제적 지위, 삶의 질,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퇴직과정과 고령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미국의 HRS와 비교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LSA는 특히 육체적인 측면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 혈액검사(blood samples), 혈압, 키와 몸무게, 허리와 둔부 둘레 등도 조사하며, 이전에 이루어진 건강조사(Health Survey for England)와도 연계하고자 한다. 표본은 건강조사 표본 중 50세 이상 약 12,000여 명이며, 조사방식은 설문내용에 따라 면접원이 인쇄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 타계식 면접조사와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다. 유럽연합의 SHARE(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⁴⁾

SHARE는 EU의 재정 지원으로 유럽국가 11개국(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참가하는 유럽의 고령자패널조사이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에 걸쳐 조사 설계를 마치고, 2002년 2회, 2003년 2회 등 모두 4번의 예비조사를 수행한 후에, 2004년 1차년도 조사를 종료하였다. SHARE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범유럽적이고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수준의 종단면 자료를 구축하여 각국의 고령화 과정을 비교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SHARE는 11개 참여국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엄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며, 이로 인해 각 국가의 언어, 문화, 제도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HARE에서 강조하는 조사 문제는 은퇴 결정요인, 건강과 경제적 성과의 상호작용, 친족관계의 역할, 세대간 교환관계 등이다.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건강, 사회 및 심리적 변수간의 상호작용과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여 공공정책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본수는 각 국가별로 1,000~1,500명으로 이들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총 표본규모는

3) ELS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http://www.natcen.ac.uk/elsa/index.htm>).

4) SHAR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http://www.share-project.org>).

25,000명 이상이 된다. 조사방식은 HRS의 1차년도 조사와 같이 컴퓨터지원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부분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가 활용된다.

〈표 1〉 외국의 주요 고령자패널조사 현황

	조사명	주관기관	시작년도	조사주기	표본크기
미 국	HRS	미시간대	1992년	격년	약 25,500명
영 국	ELSA	런던대	2002년	격년	약 12,000명
유 럽	SHARE	독일 만하임대	2005년	격년	약 25,000명

자료: 이용하,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4.

Ⅲ. 고령자패널조사의 추진 현황

고령자패널조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고령화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단순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나 은퇴와 국한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경제학, 재정, 사회학,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건강, 가족관계, 심리학, 주거, 노년학 등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또는 겪게 될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고령화 현상과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고령화를 대비한 국제적인 학술적·정책적 교류가 가능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 정책의 벤치마킹도 보다 용이해지리라 여겨진다. 이미 HRS, ELSA, SHARE 등은 상호 비교가능한 자료를 구축한다는 전제 아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고령자패널조사에 대하여 살펴보자.⁵⁾

5) 먼저 밝혀둘 점은 고령자패널조사는 아직까지 설계중에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잠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사업추진 방식

고령자패널조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인적자원연구센터(Center for Human Resources Research, 이하 CHRR)와 협력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CHRR은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지원하는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s)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NLS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패널조사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CHRR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고령자패널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패널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⁶⁾ CHRR과 같이 작업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미국 HRS와 공유 및 비교가능한 자료를 구축하여 한미간 고령화에 대한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HRS를 기초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 중국의 고령자패널자료와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령자패널조사는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이 비교 및 공유 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관한 공동연구의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 11개국이 참여하는 SHARE와 ELSA도 미국의 HRS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에 고령화에 대한 유럽국가와의 비교연구도 가능하다. 현재 이 작업을 위해서 CHRR의 연구자가 고령자패널조사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⁷⁾

한편 국내외 고령화 및 사회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자패널조사의 조사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및 통계학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본추출, 면접법, 실사 등 조사방법 전반에 대한 표집/실사 자문위원회를, (노동)경제학, 연금재정, 사회학,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보건·의료, 심리학, 가족학 등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는 설문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를 조사과정 및 설문지 내용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며, 고령자패널조사에 대한 관련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조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외 자문위원회는 CHRR과 협력하여 현재 구성중에 있다.

6)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표집 및 자료의 질에 대한 통제를 일치시킨다는 차원을 의미한다. 외국과 똑같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7) 한국노동연구원과 CHRR가 맺은 교류협력은 단순히 같은 패널자료를 공유하거나 비교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비교를 위한 설문지(한국어·영어) 공동 개발, 컴퓨터지원 면접 시스템 개발, 노트북/PDA 등을 이용한 설문도구 및 CAPI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방안 개발, 면접원 훈련프로그램 제공, 파견·교육훈련·워크숍 등을 통한 연구 및 연구진 교류 등을 포함한다.

2. 주요 조사내용

고령자패널조사는 중고령자 개인은 물론 고령화 사회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폭넓은 분야에 걸쳐 사회적 지표를 개발하고, 고령화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HRS와 유럽의 SHARE 등과 같은 외국 패널자료와 비교하여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와 경향을 이해하고 각국의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고령자패널조사는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전술된 HRS와 SHARE와 유사한 변인들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HRS나 SHARE가 격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 2006년 본 조사 첫 해는 HRS 및 SHARE 등 외국 패널자료와 비교 가능하도록 그에 조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홀수 해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주제와 내용을 담은 부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2006년 본 조사에서 다루어질 고령자패널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서 본 패널조사 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 45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둘째,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고용, 은퇴,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중고령자의 보건 및 건강 관련 변인들의 측정을 위하여 건강상태(health status),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 및 비용을 조사하고, 더불어 인지력(cognition), 장애 관련 특성,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다.

넷째, 조사대상자 개인과 가구의 재정(finance)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한다. 조사대상자의 자산과 부채는 현재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한 근로소득(임금, 사업, 부업소득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저축, 개인연금 등을 통한 자산소득 그리고 부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섯째, 조사대상자가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시장, 남북통일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개인의 연금수급, 가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재산의 상속, 요양보호시설 입소, 생존율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기대수준도 조사한다.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조 및 사회적 연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구성원 현황과 구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고령자패널조사는 가족구성원간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는 HRS나 SHARE보다 보다 자세하게 조사내용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족간 금전적·비금전적 이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가족간 이전이 고령자의 소득보장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활동 및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중고령자의 실태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사회활동 및 사회단체의 종류와 참여빈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다음의 <표 2>는 고령자패널조사의 영역과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표 2> 고령자패널조사의 영역 및 내용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인구	건강 및 보건	재정	가족 및 사회관계
주요내용	개인 및 가구특성	노동시장 참여 근로소득	건강상태 건강유지활동 및 비용, 건강보험	자산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	가족간 이전 사회적 관계
HRS 조사내용 (section)	Demographic(B)	Employment(J) Retirement(K) Pensions(L)	Health status(C) ADLs(G) Healthcare utilization & costs(D) Disability(M) Health insurance(N)	Housing(H) Expectations(P) Assets, debts & income(Q) Capital gains(R) Life insurance(T)	Familial structure(E) Family transfers(F)
고려사항	인종 관련 변인 제외	연금 관련 제도 차이 고려	건강보험에서 규정 하는 만성질환 정의	부동산시장 및 주거환경의 차이 반영	확대가족관계 포함

주: HRS의 Section Name은 2004년 HRS설문지의 조사 영역을 기준으로 한 것임.

3. 표 집

고령자패널조사는 전국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HRS나 SHARE에서도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포함하였듯이, 고령자패널조사도 중고령 연령층을 조사하여 고령화뿐만 아니라 퇴직과 은퇴과정, 노후 준비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0세 이상이 아닌 45세 이상으로 연령 범위를 확대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40대 중반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50세보다는 45세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까지 표집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200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Census)의 표본조사구를 활용하여 전국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체 표본수가 약 12,000명 정도 되는 표본(배우자가 45세 미만인 경우도 표본으로 포함)을 확률표집할 예정이다. 현재 45~64세까지는 각 연령별 500명(소계 10,000명), 65세 이상 2,000명 등 연령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사 설계에 대한 연구 진행과 예비조사를 거치면서 결정할 것이다.

4. 조사방식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HRS나 SHARE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를 CAPI 방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란 면접원 및 응답자가 컴퓨터(노트북/PDA)의 동영상이나 설문지를 보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법은 응답과 동시에 코딩이 끝나며, 면접 종료후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지는 순간 기본적인 집계나 기초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 코딩 및 에디팅 과정을 생략하여 조사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하거나 이전 면접에서 응답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체크가 가능하여 면접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표집오차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다만 주로 ‘종이와 연필’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회조사를 해왔던 우리나라에서 CAPI 방식은 면접원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면접원 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CAPI 방식으로 고령자패널자료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될 것이다.

IV. 맺음말

압축적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패널조사를 2006년부터 실시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이 고령자패널조사는 고령화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중고령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노동시장 참여, 은퇴, 소득 및 자산, 저축, 주거에서부터 건강, 인지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이나 비용,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등 고령화와 관련한 포괄적인 범위의 정보를 포함한다.

더불어 고령자패널조사는 국가간 고령화 추이 및 정책 효과 등을 비교하기 쉽도록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패널조사자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1차년도 조사를 마친 유럽 고령자패널조사(SHARE)는 유럽 11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령화패널조사를 시작한 영국(ELSA), 미국(HRS)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 HRS를 참고하여 미국과 유럽 국가와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향후

에는 일본과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고령자패널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면 고령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미시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패널자료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많은 정책적·학술적 연구가 가능해져, 이러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그 연구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고령화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고령자패널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은 물론 자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하도록 할 예정이다. ■ end

<참고문헌>

이용하(2004),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Lee, Jinkook(2004), “Panel Study of Ag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orkshop on Aging Population Panel Study in Korea,” Paper Presented at Workshop on Aging Population Panel Study in Korea, September 30th~October 1st., Korea Labor Institute.

Park, Joon-Shik and Gihong Yi(2004), “Overview of the Hallym Korean Elderly Research Project, 2002~2004,” Paper Presented at Workshop on Aging Population Panel Study in Korea, September 30th~October 1st., Korea Labor Institute.

<http://hrsonline.isr.umich.edu>

<http://www.natcen.ac.uk/elsa/index.htm>

<http://www.share-project.org>